

전환학습 관점에서 본 이주민설화조사 연구자의 다문화감수성발달에 대한 연구*

김영순** · 오영섭***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민 설화조사에 관한 국책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박사급 연구자 즉 전문가들의 다문화감수성 발달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Bennett(2004)의 다문화감수성발달모형과 Mezirow(1995)의 전환학습에서의 비판적 성찰을 이론적 배경으로서 삼아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로서 이주민 설화구술자료 DB 구축이라는 연구주제로 3개년 연구프로젝트(2016-2019)에 참여한 K대학교 전임연구원 4명을 2차례에 걸쳐서 인터뷰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다문화감수성은 자민족중심주의에서 민족상대주의로 발달하였다. 다시 말해서, 방어 혹은 최소화 수준에서 적응 혹은 통합의 수준으로 다문화감수성이 3-4단계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감수성이 발달하게 된 원인은 연구참여자들이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이주민과 타문화에 관한 의미체계와 의미관점에 전환이 있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감수성 교육에 있어서 비판적 성찰의 중요성, 전문가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이주민과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주제어 다문화감수성발달모형, 전환학습, 비판적 성찰, 박사후연구자

* 이 논문은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16년 토대기초연구지원사업 <다문화시대 한국학을 위한 이주민 구술자료 DB 구축> 연구지원으로 수행됨 (과제번호AKS-2016-KFR-1230004).

** 제1저자,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전임연구원

I. 서론

한국사회 구성원의 5%가 이주민이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주민을 보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어가는 추세에 따라서 한국인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식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김이선 외(2019)가 수행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정도, 즉 다문화수용성은 3년 전에 비하여 53.95점에서 52.81점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주민들과 교류하고자 하는 의지는 오히려 낮아지고, 이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한국사회에 동화되기를 바라는 기대는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일반 국민의 68%는 주변에서 이주민들을 접촉한 적이 없으며, 국민의 5%정도만이 다문화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았다(김이선 외, 2019: 102, 107-108).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학력수준이 높은 소위 전문가 집단에도 예외는 아니다. 학력과 다문화수용성이 비례하며, 대학원 이상 졸업자들이 다문화수용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또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질적으로 이주민과 교류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는 다른 집단과 동일하게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학력 전문가라고 해서 이주민을 더 많이 접촉하고 다문화교육의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나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상기 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한국사회는 단일민족사회의 한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점점 분명해지는 반면에,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은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는 전환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학계는 사회변화에 적합한 방향으로 시민성을 재구성하고 그 일환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수준이 발달하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김이선 외, 2019: 213-222).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와 관련된 이주민 설화조사 국책연구 수행 경험에 있는 박사급 연구자들의 다문화감수성 발달 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주민과 대면하면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실천가 및 연구자 등 전문가들의 다문화감수성은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고, 이주민과 선주민 사이의 소통과 화합의 가교역할을 하며, 정책적으로 학문적으로 건강한 다문화사회의 기반을 다지는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들이 다문화감수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거나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영순, 2017). 하지만 이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감수성의 변화를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주민을 접촉한 연구자들의 다문화감수성 발달 과정과 원인을 다룬 본 연구를 통해서 향후에 이주민을 현장에서 접촉하는 현장 전문가들 및 전문연구자들의 다문화감수성 발달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일반국민의 다문화감수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민설화조사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다문화감수성은 연구프로젝트 참여를 전후로 어떻게 발달되었는가? 둘째, 다문화감수성발달에 있어서 다문화경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가?

II. 이론적 논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 태도인 다문화감수성(multicultural sensitivity)은 상호문화역량, 문화적 감수성, 다문화의사소통역량 등으로 연구자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다른 구성요소로 정의한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인지, 정서, 행동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Chen & Starosta, 2000). 이런 다문화감수성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동적인 개념으로서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서 일생동안 변화하고 발달하는 과정적인 개념이다(West, 2009).

다문화감수성의 발달에 관하여 널리 알려진 이론은 Bennett(2004)의 다문화감수성발달모형(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DMIS)이다. DMIS는 문화차이에 대한 감수성을 부정, 방어, 최소화, 수용, 적응, 통합이라는 6개의 발달단계로 구성하고 있으며, 다문화감수성이 자민족중심주의에서 민족상대주의로 발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Bennett(2004)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감수성 분석틀은 다음 <표 1>과 같이 나눌 수 있다.

〈표 1〉 다문화감수성 분석틀

발달수준	영역	세부 내용	발달단계
[1수준] 부정	인지	문화적 차이를 인지 못함	[하위 단계] 자민족중심주의
	정의	타문화를 무시함	
	행동	타문화를 부정함	
[2수준] 방어	인지	자문화를 기준으로 인식	
	정의	자신의 세계관 유지	
	행동	타문화에 대한 방어, 차별적 행동	
[3수준] 최소화	인지	자문화와 타문화 유사성인식	[상위 단계] 민족상대주의
	정의	타문화차이를 경시함	
	행동	자문화를 우월하게 인식, 타문화를 경시함	
[4수준] 수용	인지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	
	정의	문화의 차이에 대한 호기심	
	행동	문화적 차이를 수용	
[5수준] 적응	인지	자신의 지식과 의도적으로 연결	
	정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장함	
	행동	타문화를 의도적으로 공감함	
[6수준] 통합	인지	문화적 차이를 실제적으로 인식	
	정의	문화적 유연성을 내면화함	
	행동	다문화를 이해하고 즐김	

[출처: 김영순·김금희·전예은, 2013, 12; 정지현·김영순, 2012, 145-147에서 재구성]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DMIS는 다문화감수성을 일련의 연속적인 발달단계로 구체화하여 다문화감수성의 수준을 예측이 가능하게 한 이론적인 강점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그러한 발달과 변화가 일어나는 지에 대하여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다문화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특정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미희, 2019). 성별, 연령, 경제적 수준, 학력 등의 인구통계적 요인과 자아존중감, 민족정체성, 인권의식, 소수자에 대한 태도 등의 인지적, 정서적 요인이 다문화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이 다문화감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합의된 의견은 없다. 경험변인에 있어서, 타문화에 대한 접촉경험이 다문화감수성 영향을 미치지만,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경험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비형식적이고 질적인 경험이 다문화감수성을 증진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숙 외, 2011; 이성희 외, 2014; Pedersen, 2010). 이런 점에서 다문화감수성이 단순히 교육참여 혹은 학습경험을 통하여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찰과 반성의 과정을 수반하는 경험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와 관련된 인식과 정서를 바꾸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박미희, 2019).

본 연구는 이러한 다문화감수성의 발달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보완적으로 전환학습이

론을 사용하고자 한다. 전환학습(transformative learning)은 Mezirow가 주창한 성인학습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성인학습자가 극적인 사건 혹은 의미있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사고방식 혹은 신념과 같은 참조체계를 반성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설명한다(고대장, 2019).

전환학습에서 중요한 개념은 경험, 비판적 성찰, 개인의 발달의 3가지이며, 특히 비판적 성찰은 개인의 경험이라는 학습자원으로 부터 개인의 발달이라는 학습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히로세, 2018).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전환학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비판적 성찰에 주목하고자 한다.

전환학습에서 비판적 성찰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내용성찰, 과정성찰, 전제성찰이 있다(Mezirow, 1995; Kitchenham, 2008; 고대장, 2019). 첫째, 내용성찰(content reflection)은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역으로 생각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내용 자체에 대한 성찰이며, 이것은 의미체계(meaning scheme)에 대한 전환을 일으킨다.

둘째, 과정성찰(process reflection)은 행동의 동기나 관련된 요인들을 숙고하는 것으로서, 경험을 다룬 방식이나 문제해결 전략이나 과정에 대한 성찰이며, 이것은 의미체계의 전환을 일으킨다.

셋째, 전제성찰(premise reflection)은 개인의 가치관에서 작동하고 있는 전제나 가정, 신념 등에 대하여 성찰하는 것으로서, 이는 의미관점(meaning perspective)에 대한 전환을 일으킨다.

〈표 2〉 비판적 성찰

성찰의 유형	성찰의 내용	성찰의 결과	전환의 정도
내용성찰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성찰	의미체계 전환	단순한 전환
과정성찰	행동의 근원과 관련 요인에 대한 성찰	의미체계 전환	단순한 전환
전제성찰	가치관 등 근본적인 전제에 대한 성찰	의미관점 전환	심오한 전환

[출처: 히로세, 2018, 22; Kitchenham, 2008, 115에서 재구성]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용성찰과 과정성찰을 통해서 의미체계의 전환이 일어나고, 전제성찰을 통해서 보다 깊은 차원의 변화인 의미관점의 전환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비판적 성찰은 개인의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개인의 의미체계, 더 나아가서 의미관점까지도 전환을 일으켜서 개인의 발달을 도모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에 대한 경험이 다소 미흡한 서사문학전문가들인 연구참여자들이 이주민 설화조사라는 연구프로젝트를 통하여 이주민을 접촉하면서 다문화 감수성이 발달하는 과정을 전환학습이론에 비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가 채택한 전

환학습이론의 비판적 성찰은 연구참여자들은 이주민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민족중심주의적인 의미체계와 의미관점이 민족상대주의적인 의미체계와 의미관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상의 다문화감수성발달과 전환학습에서의 비판적 성찰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 3>와 같다.

<표 3> 다문화감수성 발달과 비판적 성찰

발달단계	[1단계] 자민족중심주의	비판적 성찰	[2단계] 민족상대주의
발달수준	[1수준] 부정 [2수준] 방어 [3수준] 최소화	내용성찰 과정성찰 전제성찰	[4수준] 수용 [5수준] 적응 [6수준] 통합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문화감수성의 1수준에서 3수준에 해당하는 자민족중심주의로 부터 다문화감수성의 4수준에서 6수준에 해당하는 민족상대주의로 전환하는 데에는 있어서 비판적 성찰이라는 전환학습경험이 요구된다. 비판적 성찰은 내용, 과정, 전제를 성찰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미체계 혹은 의미관점의 전환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전환학습 경험은 자민족중심주의에서 민족상대주의로 다문화감수성을 발달시킨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및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사례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사례연구는 동시대의 현상 즉, 사례를 깊이 있게 그리고 실제 세계의 맥락에서 탐구하는 연구방법이며, 특히 현상과 맥락이 명확히 구분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방법이다 (Yin, 2014: 16). 본 연구는 이주민설화조사 연구프로젝트라는 공통적인 맥락을 가진 한국인 전문가들의 다문화감수성이 어떻게 발달하고 있으며, 왜 그러한 발달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질적 사례연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이주민 설화구술자료 DB구축이라는 연구주제로 3개년 연구프로젝트(2016-2019)에 참여한 K대학교 전임연구원 4명이다. 이 연구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시아 20여 개국에서 온 120여 명의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들로부터 1,400여 편의 설화, 신화, 민담, 전설, 생애담 등의 각종 구술자료가 수집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공통점

은 이들이 대부분 여성이며 설화, 신화, 문학치료 등을 전공한 국문학 박사들이다. 이들은 설화조사팀의 팀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이주 유형의 이주민을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이주민들의 설화를 채집하고 정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프로젝트를 참여하기 이전에 다문화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으며, 이주민을 진지하게 접촉한 경험이 없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연구참여자의 특성

연구 참여자	나이	성별	학력	역할	조사지역	연구기간	접촉한 이주민(명)
1	48	여성	국문학 박사	1조 팀장	강원, 서울, 경기 인천, 전라, 경상	1-3차년도	51명
2	43	여성	국문학 박사	2조 팀장	충청, 서울, 경기 인천, 전라, 경상	1-3차년도	50명
3	38	남성	국문학 박사	3조 팀장	경상, 서울, 경기 인천, 전라	1차년도	20명
4	45	여성	국문학 박사	3조 팀장	경상, 서울, 경기 인천 전라	2-3차년도	48명

2.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3단계로 실시하였다. 첫째, 서면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계획서와 연차별 보고서에 기술된 연도별 계획 및 연구원별 역할을 토대로 인터뷰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며, 2019년 5월 한 달 동안 서면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서면인터뷰질문지의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인터뷰 질문

구분	질문내용
I. 연구자의 역할과 연구수행내용	Q1. 연구 수행시 본인의 역할과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연도별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II. 연구자의 다문화 경험	* 각 질문에서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수행 경험을 설명해 주세요.
	Q2. 연구참여자(구술자)의 인원, 출신국가, 이주민유형(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난민 등)은 어떠한가요?
	Q3. 특별히 기억을 갖게 된 연구참여자(구술자)는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Q4. 연구참여자 중에서 구술과 관계없이 그들의 이주경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Q5. 귀하는 해당년도의 연구수행 전, 연구수행 중, 연구수행 후 이주민에 대한

	귀하의 생각의 변화는 어떠합니까? Q6. 연구와 수행하면서 귀하가 정주민인 한국인이 이주민에게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Q7. 이주민 구술자와 접촉하면서, 이주민 연구에서 귀하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Q8. 이주민 커뮤니티를 직접 보고 들으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까? Q9. 설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설화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III. 연구결과와 개인적, 사회적 기여	Q10.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이주민 연구, 사회통합 등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위해서 기대되는 바는 무엇입니까? Q11. 귀하는 연구참여를 통해서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었습니까?

둘째, 서면인터뷰에서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심층인터뷰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인터뷰에서 심층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던 내용은 본 연구의 연구문제인 연구참여자들의 연구프로젝트참여 전후의 변화에 대한 Q5, 연구결과와 사회적 기여에 대한 Q10, 연구결과를 통한 연구자로서의 역량강화에 관한 Q11이었다. 본 연구자는 2019년 6월 초에 60분 동안 집단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이 연구참여기간에 연구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발표한 논문은 3편이었으며, 연구참여자들의 다문화감수성 및 다문화교육에 대한 의견을 본 연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서면인터뷰와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를 반복비교분석법을 통해서 연구참여자들의 다문화감수성 발달 경험에 대한 내용을 범주화하였다(유기웅 외, 2012: 29-31). 특히 주제를 범주화할 때, 전환학습이론의 비판적 성찰과 다문화감수성발달모형(DMIS)을 사용하여 범주화하였다.

IV. 연구결과

1. 다문화감수성 발달 현황

1-3년 동안 이주민 설화조사연구에 연구자로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개인별로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참여 이전에는 자민족중심주의의 수준에 있었지만, 연구 참여 이후에는 민족상대주의의 수준으로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는 연구참여자들의 다문화감수성의 발달을 요약한 것이다.

〈표 6〉 연구참여자별 다문화감수성의 발달

연구 참여자	자민족중심주의			민족상대주의			수준 변화
	부정	방어	최소화	수용	적응	통합	
1		○				●	4단계 상승
2			○			●	3단계 상승
3		○			●		3단계 상승
4		○			●		3단계 상승

[○: 연구프로젝트참여 이전, ●: 연구프로젝트참여 이후]

1)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1은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문화적 차이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연구참여자 1은 학교라는 공간에 있는 유학생들만을 접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설화연구자로서 연구에 참여하면서 이주민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을 비로소 인식하고, 이주민들이 자신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저는 일단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 한국에 이렇게 많은 이주민들이 와 계시다는걸 제 주변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 별로 인식은 못하고 있었고, ... 단순하게 설화 연구자로서 관심을 갖고 일단, 어, 이 사업에 시작을 하게 됐구요. ...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주변에 많은 거예요. ... 아 우리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맞구나라는 걸 그 부분을 인식하게 됐고, 왜냐면 길에서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밖에는 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 이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눈에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오히려 그, 시각이 다양해졌다고 해야하나요.” (연구참여자 1, 심층인터뷰)

더 나아가서 연구참여자 1은 연구프로젝트를 통하여 수많은 설화를 정리하면서 인류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하여 내면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점에서 연구참여자 1은 방어적 단계의 자민족중심주의에서 통합적 단계의 민족상대주의로 발달하였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채록된 수많은 설화는 인류 보편성과 민족 고유의 특수성을 담고 있는 서사이다. 설화 결과물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주민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인류 보편의 동질적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 구성원의 한 일원임을 인정하는 인식 개선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참여자 1, 서면 인터뷰)

2)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2는 다른 연구참여자들과 다르게 연구프로젝트 참여하기 이전에도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2는 학술발표를 통해서 결혼이주여성을 대변하는 목소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2는 결혼 이주 여성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한국에 팔려온 마치 심청전의 심청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한국 사회를 비판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은 마치 단군신화의 웅녀와 같은 존재로서 한국사회를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 2는 자신의 이러한 주장도 머리로 알고 주장한 내용이었으며, 구체적인 경험 이 없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 2는 연구에 참여하면서 여전히 이주민에 대한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의 이론적 주장이 실제로 맞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선 저는 전과 후가 어, 이 굉장히 큰 그 인간적으로도 연구자로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 조사를 하면서 나도 아닌 척 했으나 이주민에 대한 엄청난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구나. 그분들이 어떤 생활이 어려울 것이다. 우울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선입견이 있었는데 ... 근데 그때 사실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쓴 논문이지. 마음으로 이분들에 대한 진짜 그런 건 아니었던 거 같아요. 이번 하면서 이분들은 팔려 온 게 아니라 ... 실제로 아 정말 내가 그 때 쓴 논문이 맞구나. 아. 웅녀였구나. 지금 한민족, 한민족 강조하는 대한민국에 일종의 다양한 민족의 문화를 뿌리를 전파하고 다문화사회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진짜 웅녀 같은 존재들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연구참여자 2, 심층인터뷰)

연구참여자 2는 이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잊고 이주민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다. 설화와 같은 이주민들의 문화적 자산은 한국의 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참여자 2는 최소화 단계의 자민족중심주의에서 통합적 단계의 민족상대주의로 발달하였다.

“이주민의 설화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가난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잊고 각국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나아가 그들을 존중하게 되는 마법을 경험하였다. 필리핀의 설화를 들으며 그들의 생명존중 사상에 감탄하게 되었고, 한국과 똑같은 베트남 설화를 들으며 우리와 같다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주민을 통해 조사된 각국의 다양한 구술 자료는 특히,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연구참여자 2, 서면인터뷰)

3)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3은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다문화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3은 이주민들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연구에 참여하면서 이주민들을 접속하면서 이주민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연구참여자 3은 1차년도 연구에만 참여하고 이후에 해외 파견으로 이주민이 된 상황이 되면서, 연구수행 중에 만난 이주민의 경험이 자신의 경험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연구수행 전에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이나 편견의 여지를 막연히 인지하고 있는 정도였다면 연구를 수행하면서는 그들의 실제 경험을 통해 막연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이주민 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 보다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년차 사업 종료 시점 이후로 본인 스스로가 해외 이주민의 입장으로 살게 되면서 연구 수행 중 만났던 이주민들의 경험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상황에 이른 것도, 본인이 다문화 문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고 심화할 수 있게 한다.”(연구참여자 3, 서면인터뷰)

더 나아가서 연구참여자 3은 한국인과 이주민을 비교하고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문화보편성에 근거하여 이주민의 삶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차별적 인식을 거두어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3은 공감과 감정이입을 통해서 이주민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타문화의 입장에서 현실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방어적 수준의 자민족중심주의에서 적응 수준의 민족상대주의로 발달하였다.

“그들의 문화와 외모, 언어와 인식 상에 한국인과의 차이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보다 심층적으로는 그들이 살면서 인식하고 있는 삶의 문제나 감정의 문제 등이 한국인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이 한국인과 다를 것 없는 삶의 목표와 문제, 갈등, 감정 등을 지니고 있음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당연히 되고 있는 인식적 차별의 시선들을 거두어낼 필요가 있다.”(연구참여자 3, 서면인터뷰)

4)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4는 연구참여 이전에 이주민에 대한 거리감과 긴장감이 있었다. 본인의 말과 행동이 이주민이라는 생소한 사람들에 대하여 상처를 주게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때문에 이주민들을 만나는데 거리감을 두었다. 하지만 연구를 참여하면서 그러한 긴장감이

사라지고 한국인들을 만나듯이 자연스러운 감정 형성과 이주민들에 대한 공감으로 변화되었다.

“저에 대한 변화를 먼저 말씀해 드리면, 긴장감에 대한 거거든요. 이주민을 대할 때 실수하지 않을까. 뭔가 되게 인권이라고 되게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실수 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었다면 이제는 되게 이 연구가. 이제는 연구에서 되게, 자유로워졌어요. 긴장감에서,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긍정적이구요. ... 조사를 수행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만나듯이 자연스럽게 아이교육 이야기도 하고, 조사 앞뒤로 남편과 시부모님 흉도 함께 잠깐 잠깐 보면서 레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참여자 4, 심층 인터뷰)

연구참여자 4는 설화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에 심취하면서 문화의 이질성을 수용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이주민들이 사유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마음에 이주민들의 가치관을 이해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4는 학술지논문에서 자신의 변화를 ‘기억의 각인’과 ‘마음의 감응’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런 점에서 연구참여자 4는 방어적 수준의 자민족중심주의에서 적응 수준의 민족상대주의로 발달하였다.

“본 연구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만나 모국의 설화를 직접 듣고 채록하는 과정에서 느낀 구술문화의 성격은 ‘기억의 각인’과 ‘마음의 감응’이었다. 사건의 상황이나 인물의 행위가 한국의 구비설화나 외국의 설화지만 기억에 각인된 설화들과 얼핏 비슷한 요소를 비교하다보면, 오히려 우리와 거리가 있는 비현실적이고 낯선 상상의 세계라서 이질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의 이미지와 상징이 더 반복되어 떠오르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다 그 낯선 문화의 상징들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며 겪는 반복적이고 근원적인 삶의 문제와 맞게 되는 것을 통찰하게 될 때, 그들의 삶의 방식에 감응하게 되는 경험을 반복했다.” (연구참여자 4, 학술지 논문)

2. 다문화감수성발달에서의 성찰적 요인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다문화감수성발달이 전환학습발달과 유사하다고 보며, 전환학습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판적 성찰이 연구참여자들의 생각을 전환시킨 요인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주민과 타문화에 대한 자신의 지식, 행동, 가치관 등을 성찰하였다. 본 연구는 전환학습이론에서의 비판적 성찰 분석 틀을 활용하여 각 수준의 성찰 내용과 성찰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다음 <표 7>은 연구참여자들이 수행한 비판적 성찰을 분석하고 요약한 것이다.

〈표 7〉 연구참여자들의 비판적 성찰

성찰 수준	상위 주제	의미 단위
내용성찰	유능하고 주체적인 결혼이주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능하고 한국어가 유창한 스토리텔러 • 행복하고 주체적인 여성
	한국에서 삶의 기반을 다지는 노동자와 유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함 • 자기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과정성찰	교육자 및 연구자로서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교육자에서 문화교육자로 발전 • 문화특수성과 문화보편성의 조화
	인간관계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으로서 동질감 • 인간으로서 연대의식
전제성찰	타문화에 대한 선입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질이 낮은 이주민 • 모국문화에 자부심이 없는 이주민
	자문화에 대한 재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한국인 • 이중적 잣대를 가진 한국인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환학습이론의 비판적 성찰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비판적 성찰을 내용성찰, 과정성찰, 전제성찰의 3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였지만, 일부는 중첩되어 나타났다. 연구결과 상위주제로는 유능하고 주체적인 결혼이주여성, 한국에서 삶의 기반을 다지는 노동자와 유학생, 교육자 및 연구자로서의 역량강화, 인간관계의 확대, 타문화에 대한 선입견, 자문화에 대한 재인식이다.

1) 유능하고 주체적인 결혼이주여성

연구참여자들은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이전에는 공통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지식에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어가 서툴며, 가정살림을 못하고, 가정생활이 불행하다는 선입견이 있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만난 결혼이주여성들이 선주민여성들 만큼이나 유능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있었으며, 모국의 설화를 적극적으로 구술할 만큼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는 주체적인 여성이었다고 자신의 기존 지식을 수정하였다. 이것은 비판적 성찰의 유형 중에서 내용성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선지식을 역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미체계가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유능하고 한국어가 유창한 스토리텔러

연구참여자 1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어로 소통이 잘 안되고 살림을 한국에서 배울 거라고 생각했으나, 연구를 통해서 만난 여성들이 한국어가 유창하고 살림을 잘하는 유능한 여성들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연구참여자 4은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하여 구체

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연구를 통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애정과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모국의 설화를 구술하는 뛰어난 스토리텔러라고 인식하였다.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일단 한국어가 굉장히 서툴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실 제 오히려 이분들의 한국어는 굉장히 유창했었고, 예.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제가 그 분들한테 김장 담는 법을 배워요.” (연구참여자 1, 심층 인터뷰)

“안산에서 만난 ○○○ 화자는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중국의 재밌는 이야기를 맛깔스럽게 하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야기의 문법이 몸에 체득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맛깔나게 하는 힘이 있는 구술자로 다른 나라 이야기를 들을 때도 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진주에서 만난 캄보디아출신은 □□□는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구술하면서 캄보디아 이야기를 태어날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조사를 하는 2시간의 과정에서 점점 적극적으로 변화한 구연자였습니다.” (연구참여자 4, 서면 인터뷰)

(2) 행복하고 주체적인 여성

연구참여자 2는 연구조사 이전에도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연구참여자 2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추상적인 지식이며, 이 또한 결혼이주여성이 불행하고 생각하는 선입견에 근거한 것이었다. 연구에서 직접 만난 결혼이주여성들은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이었다. 연구참여자 4는 자신의 선지식과 달리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행복하게 삶의 만들어가는 모습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보면서 인상적이었다고 말하면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자신의 의미체계를 전환하게 되었다.

“우선 조사를 하면서 나도 아닌 척 했으나 이주민에 대한 엄청난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구나. 그분들이 어떤 생활이 어려울 것이다. 우울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선입견이 있었는데 ... 근데 너무나 만난 이주 여성분들을 보면 공통점은 적극적이고. 주체적이고. 호기심 많고. 사교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아 정말 내가 그 때 쓴 논문이 맞구나. 아. 옳았구나.” (연구참여자 2, 심층 인터뷰)

“안산에서는 통일교로 이주한 경력을 말씀하셨는데, 삶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분들이 영덕으로 소개되어 오는데, 구연자의 경우 옆집에 자신의 친구가 이사 오게 해서 외롭지 않고 즐겁게 삶을 만들어가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연구참여자 4, 서면 인터뷰)

2) 한국에서 삶의 기반을 다지는 노동자와 유학생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참여 이전에는 공통적으로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한국인 사업주로부터 착취와 인권유린을 당하는 사회적 약자이며 수동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연구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행복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요로우며 적극적으로 한국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들은 유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으나, 연구를 통해서 만난 유학생들 역시 한국에 온 목적이 분명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한국에서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노동자와 유학생들은 자기개발에 투자하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준비하였다. 이것은 연구자들의 의미체계에 영향을 주는 내용성찰에 해당된다.

(1)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함

연구참여자 1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이주노동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에 왔기 때문에 고용주로부터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지만 항거할 수 없는 존재, 임시적인 이주민으로 여겼다. 하지만 연구를 통해서 만난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서 경제적으로나 인간적으로도 좋은 대접을 받았으며 모국의 경제적 수준에 비해 윤택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들은 가능하면 한국에 계속해서 정착하기를 원하였다.

“제가 만났던 분은 어쨌거나 그 사장님이 뭐 이렇게 숙소나 이런 것들을 대접을 뭐 다 대접을 해주고 지금 아내랑 같이 사는 집도 마련해 주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었구요.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도 꼭 한국에 살겠다고 돌아가겠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벌어서 내 나라, 내 집, 그러니까 내 고향에 땅을 사고 건물을 다 사 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팔 분도 저보고 지금 땅이 있고, 집을 지어 놔오니카 카트만두에 놀러오라고. 집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할 정도로 돈은 벌어서 거기서 이제 투자하고 뭐, 그 다음에 고향에 사람들 잘 먹고 살 수 있게만 해줘도 한국에서 계속 있고 싶다. 네. 정착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연구참여자 1, 심층 인터뷰)

외국인 유학생들 역시 한국에 온 목적의식이 분명하였다. 한국에서 배우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미래 설계가 구체적이었으며, 한국에서의 유학생생활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였다.

“유학생들은 어 되게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나라에

돌아가서 해야 될 꿈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 나는 여기서 한국어에서 뭘 배워서 그 미래에 대한 설계가 아주 구체적이었구요. 예.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고 대만이나 또는 태국으로 돌아간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자기가 학위를 따고 했던 그 한국에서의 경험들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그 펼치고 싶어 하는 꿈들이 한국어와 관련된 분야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행위 예술 이런 것들도 있었구요. 그 되게 다양하게 어쨌거나 이 한국에서의 유학생활동을 경험으로 해서” (연구참여자 1, 심층 인터뷰)

(2) 자기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연구참여자 2가 만난 이주노동자들은 노동 이외의 시간에 자기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한국어를 공부하고, 이를 위하여 미디어를 활용하거나 한국 사람을 찾아다니며 학습활동을 하였다. 연구참여자 4가 만난 외국인 유학생들은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하여 도전하고 노력하였으며, 취업 때문에 마음을 줄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주 노동자와 유학생들의 모습은 선주민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어....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책도 드리고 나중에는 택배도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굉장히 혼자 막 유튜브로 한국어 공부도 하시고, 그 막 전복 진안이라서 마이산 앞이라 주말에 다른 분들은 쉬는 날, 막 자기 기숙사에서 자기 바쁘신데, 이분은 일부러 마이산가서 한국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2, 심층 인터뷰)

“유학생의 경우에는 계층의식이 많이 보였어요. 그 도전의식과 그 적극성과 그 열정. 인도 친구는 어마어마해서. 여학생이었어요. OOO라는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논문 남겼어요. 그 친구는 어학을 다닌 친구였어요. ... 그 칠레 친구는 여기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정 아니면 안되면 정말 일본의 기업이라도 이렇게 남아서 여기서 일을 하고 싶다. 취준생인 친구도 있었는데 취업이 잘 안되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연구참여자 4, 심층 인터뷰)

3) 교육자 및 연구자로서 역량강화

연구참여자들은 이주민설화조사연구에 참여한 이후에 이주민설화 및 이주민과의 만남에 비추어서 자신이 국문학 전공자로서 자신의 연구와 교육 방식에 대하여 성찰하였다. 이것은 비판적 성찰의 유형 중에서 과정성찰이며, 내용성찰보다도 한 단계 더 행동의 동기나 요인에 관하여 숙고하면서, 자신이 가진 의미체계에 전환을 발생시킨다. 연구참

여자들은 연구참여 이후에 국문학전공자로서의 개인역량 및 문화적 지식에 있어서 다문화 인식 전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 문학교육자에서 문화교육자로 발전

연구참여자 2는 이론 연구에 머물던 수준에서 이주민과 그들의 설화를 접하면서 연구의 틀이 확장되었으며 문학교육자에서 문화교육자로서 역량이 강화되었다. 연구참여자 3은 서사문학의 연구관점이 국내에서 세계로 확장되었으며, 자신을 다문화서사전문가로서 발전하였다고 자평한다.

“제 역량이 부끄럽지만 많이 신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이 있고 그래서 학문적으로 이론을 공부하고. 그런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어찌됐건 어, 이제 웬만한 나라에 우리나라의 그 주요 이주민들의 모국의 설화들을 다 어느 정도 다 안다고 생각하고요. 부끄럽지만 지금 3차 년도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접했었어요. 이야기가. 이제 다 알겠는거죠. 네, 틀이 잡힌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설화로 문화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논문을 그 동안 써왔었는데. 사실 그때는 제가 설화 연구자로서 신념으로 설화를 넓게 활용하고자 애를 문학 교육으로 쓰자였던 건데. 지금은 반대로. 진짜 문화 교육자가 된 거 같아요. 문화 교육자로서 정말 설화만큼 좋은 텍스트가 없구나를 확인하는 자리였던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2, 심층인터뷰)

“연구 참여를 통하여 본인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본인의 연구 분야인 ‘서사’에 대한 시야의 확장이다. 기존 한국 전통 서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알리는 차원에 연구의 관점이 한정되어 있었다면, 세계 각국의 훌륭한 이야기 문화를 접하게 됨으로써 연구의 관점을 세계적인 범위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이에 본인은, 1년의 짧은 기간 연구에 참여했을 뿐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다문화 서사전문가, 궁극적으로는 서사문학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연구참여자 3, 서면인터뷰)

(2) 문화특수성과 문화보편성의 조화

연구참여자 1, 4는 연구참여 이전에는 국문학을 기반으로 한 한국문학 및 한국문화에 대한 특수성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연구에 참여한 이후에 이주민들이 들려준 설화 및 문화를 통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에 눈을 뜨게 되었으며, 문화특수성과 보편성이 조화된 의미체계로 전환되었다.

“연구자로서. 이게 역량 강화 될 수밖에 없었을 게 한국의 이야기만 알고 그나마

유명한 독일 민담이나 요런 것들만 알고 있다가 어,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 원래 이제 이게 저희가 원래 설화가 전파설이 있고, 누군가가 전해줬을 거라고 하는 전파설과 이제 인류 보편성, 자연 발생적으로 각 나라에서 그 인류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같은 이야기들로 구현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 쪽을 믿고 있었던 건데 실제 만나보니까 너무 똑같은 이야기가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비교 연구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많이 확장되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거 같고.” (연구참여자 1, 심층인터뷰)

“저는 문화, 설화를 처음 공부할 때는 첫 논문도 그렇고요. 2차 년도 때는 설화를 통해서 문화의 보편성에 되게 관심이 많았다면 3차 년도는 연구자로서 달라진 거는 문화적인 이질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그 이질성을 설화적인 상상력을 어떻게 그 간극을 어 좀 메워나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는 역량을 그쪽으로 더 쓰이고 싶어요. 특히 아까 뭐 인도네시아, 정말 인도네시아스러웠지. 왜냐면 지진과 태풍과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전설들이 어 뭐, 주는 느낌들이 각 나라마다 특히 전설이. 되게 달라서 전설에 대한 해석 능력이 더 저는 깊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참여자 4, 심층인터뷰)

4) 인간관계의 확장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여성이며 연구에 참여하면서 만난 이주민들도 대부분 결혼이후 여성들이다. 이런 점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이주여성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여성으로서 동질감을 느끼고, 동시대와 동일한 국가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연대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여성과 인간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그 결과로서 자신의 인간관계영역이 확장되었다. 이는 과정성찰로서 자신의 행동과 그 근원을 반성하는 것이다.

(1) 여성으로서 동질감

연구참여자 1은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과 결혼이주여성의 삶이 동일하다는 것을 느끼고 감정이입이 되었으며,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문제는 바로 한국여성의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연구참여자 4는 연구를 위해서 결혼이주여성들과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여성으로서 동일한 삶의 문제를 공감하게 되었다.

“... 제가 지금 인식이 달라진 부분도 그거거든요. 아, 다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문화도 다르고, 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나라에 오니까 삶이, 여성의 삶이 똑같다라는 거죠. 임신, 출산, 육아, 직장 생활. 이런 것들이 제가 느끼는 그대로다. 감정 이입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래서 오히려 서로가 좀 동지. 공감하는 부분. 또,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으니까 또 시댁과의 문제 이런 것들. 그분들이 외국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뭐. 한국 언어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겠지만 오히려 여성으로서의 동질성은 훨씬 더 많이 느껴서 이분들의 이 자료가 우리가 여성의 문제, 한국의 여성 문제 또는 인류의 여성문제까지 같이 아우를 수 있는. 한국의 시집살이담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연구참여자 1, 심층인터뷰)

“조사를 수행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만나듯이 자연스럽게 아이교육 이야기도 하고, 조사 앞뒤로 남편과 시부모님 흉도 함께 잠깐 잠깐 보면서 레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성의 삶의 과정에서 겪는 출산, 육아, 사회적 활동 등의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사람들이 되면서, 이주민을 조심스럽게 대하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연구참여자 4, 서면인터뷰)

(2) 인간으로서 연대의식

연구참여자 1은 출신 및 혈연에 근거한 한국의 지역주의를 비판하면서, 이를 넘어서서 이주민들을 대할 때 인간으로서 연대의식을 강조하였다. 연구참여자 3은 한국사회가 이주민을 여전히 동화주의, 시혜주의에 근거하여 지원한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연대의식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한국에서 출신 지역, 모교, 성씨 등 세부적으로 갈라서 그 속에서 동질성을 찾고 끈끈한 연대감을 모색하려는 경향을 이주민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여 국적, 피부색, 말투로 갈라서 이질성을 강조하고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주민을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 여성, 남성으로 바라보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참여자 1, 서면인터뷰)

“광주에서 만난 제보자의 권유로 동남아 이주민들의 다문화 행사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다. 다양한 이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환담을 나누고, 새로이 집단에 합류한 구성원들을 환영하는 자리였다. 낯선 타국당의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같은 입장의 구성원들을 만나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이 훈훈하였지만, 그와 같은 자리에 한국인 구성원들의 참여가 적고, 참여한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지원 단체의 관계자가 전부로서 남의 일처럼 한 걸음 떨어져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주민 커뮤니티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방향성이 ‘지원’보다는 ‘연대’로 나아가야 함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었다.” (연구참여자 3, 서면인터뷰)

5) 타문화에 대한 선입견

연구참여자들은 부지불식간에 이주민들이 선주민인 한국인들보다 부족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생활 및 문화 수준 등에서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연구를 통해서 만난 이주민들이 실제로는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전제가 깨지고 전환적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비판적 성찰 중에서 전제성찰을 보여준다.

(1) 삶의 질이 낮은 이주민

연구참여자 1은 매매혼으로 인하여서 결혼이주여성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구를 통해서 만난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결혼과정이 다양하고, 결혼생활도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2는 이주민들이 삶의 질이 낮고 불행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주민들도 이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자신들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연구를 통해서 이주민에 대한 이러한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결혼 이주는 결혼이 대부분 소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었고, 남편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연구 수행 전에 했었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구술자는 통일교, 연애, 지인 중매, 소개업체 만남의 계기는 다양했으며, 상당수는 통일교를 통해 결혼이 이루어졌고, 남편은 물론 가족과 종교적 교감이 컸다. 조사자가 만난 구술자 대부분은 매우 밝고 개성이 강했고, 주체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1, 서면인터뷰)

“미디어의 영향 때문일까. 본 연구자도 이주민의 삶의 질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구술 조사를 위해 만난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한국에서 문화적응을 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 제일 첫 번째 힘든 것은 문화 적응이 힘든 것을 자신이 이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선입견. 그게 이제 시골의 경우는 무조건 밥만. (웃음) 그리고 무조건 너 가난해서 왔지. 내가 꿈이 있어서 온 건데 가난해서 왔지.” (연구참여자 2, 서면인터뷰)

(2) 모국문화에 자부심이 없는 이주민

연구참여자 1은 이주민들이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없이 설화조사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이주민들이 모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는 것은 연구참여자의 선입견이었다. 연구참여자 2도 역시 이주민들이 설화조사에 경제적인 이유로 참여할 거라는 전제를 가졌다, 하지만 이주민들이 모국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자존심 때문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구술자들이 소개자, 조사자와의 약속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야기관에 동참하거나 이야기관 동참에 부담감을 갖고 강요받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자신의 모국의 이야기와 문화를 알린다는 사명감으로 참여하는 구술자가 많았다. 구술자의 적극성으로 최고 4회까지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한 구술자가 2명, 3회까지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한 구술자가 3명이고, 대부분 2회까지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1, 서면인터뷰)

“설화 구술이 이주민 삶에 도움이 될까. 설화 구술을 하는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사에 임했다. 1시간에 1만원의 상품권밖에 지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술을 위해 미리 사전 조사를 하고 설화를 구술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많은 이주민들이 설화 구술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모국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모습이 확인 되었다.” (연구참여자 2, 서면인터뷰)

6) 자문화에 대한 재인식

연구참여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이주민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자문화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주민의 시선으로 보는 한국문화 및 한국인의 모습을 통해서 자문화중심적인 관점에서 문화상대적인 관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비판적 성찰의 유형 중에서 전제성찰에 해당한다.

(1) 타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한국인

연구참여자 1은 이주민의 한국문화적응에 대한 구술을 통해서 자문화에 대하여 성찰하게 되었다. 이주민들의 문화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한국인들이 타문화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거나, 허례허식이 있으며, 호칭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일단은 뭐 사생활의 보호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어딜 돌아다녀도 다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온다는거. 동네 사람들이 너네 며느리 어디 갔다. 그러니까 자기가 추리닝만 입고 어디를 가도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와서 너무. 네. 개인 사생활이 너무 없다. 또 어떤 일본 분은 한국 사람들이 아무 때나 놀러 온다.(웃음)” (연구참여자 1, 심층인터뷰)

“한국적인 문화가 각 나라에서 갖고 있는 것들과 어려움이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에서 보통은 지금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문화도 음식도 너무 많이 차린다. 딱 꼭 필요한 추모하는 돌아가신 분에 좋아했던 것들만 차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별로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호칭도 본인들은 나이가 많아야 형님인데 나이가 자기가 더 어린대도 나이 많은 동서가 자기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 자체도 뭐 이런 호칭호도 용납이 안된다는 거예요. 자기네 문화와 다르니까.” (연구참여자 1, 심층인터뷰)”

(2) 이중적 잣대를 가진 한국인

연구참여자 1, 4는 연구를 통해서 이주민의 외모나 모국의 경제적 수준으로 이주민을 폄하하고 하대하는 한국인의 이중적인 모습을 인식하게 된다.

“서구적으로 생긴 이주민에게는 예의를 갖추지만 동양적으로 생긴 이주민에게는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 인식이 있다. 이주민을 대하는 한국인의 이중적 잣대가 있다. 예를 들면, 일상에서는 한국어를 잘한다고 평가하지만, 직장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준다.” (연구참여자 1, 서면인터뷰)

“많이들 몽골분이나 캄보디아분들 만났을 때는 자기도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여기서 정말 잘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낮게 취급하고, 또 자신을, 자신을 얼마나 배운지도 모르면서 자신을 못 배운 사람 취급을 한다는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이야기 하셨었고, 키르기스스탄분 같은 경우에는 일을 되게 많이 이미 다 배워서 온대요. 키르기스스탄분들은.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번 시집 갔다 온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하는 그게 키르기스스탄 사람들은 남자고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요.” (연구참여자 4, 심층인터뷰)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민 설화조사와 같은 다문화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한 전문연구자들의 다문화감수성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왜 그러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이 연구프로젝트의 전임연구원으로서 1-3년 동안 수십여 명의 이주민들을 만나서 각국의 설화 및 한국문화적응 등에 관한 구술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이주민을 집중적으로 대면하고 공감적인 대화를 나눈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이 연구프로젝트 참여 이전에 다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연구프로젝트 참여를 통해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연구프로젝트 전후의 다문화감수성발달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다문화감수성은 자민족중심주의에서 민족상대주의로 발달하였다. Bennet(2004)의 다문화감수성발달모형(DMIS) 관점에서 볼 때, 연구참여자들은 방어 혹은 최소화 수준에서 적응 혹은 통합의 수준으로 다문화감수성이 3-4단계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다문화감수성발달의 원인은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다문화경

험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였기 때문이다. 성찰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참여자들은 내용성찰을 통해서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본인의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내용의 지식체계를 반성하고, 이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지식을 얻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과정성찰을 통해서 한국문학에 기반한 교육자와 연구자로서의 역량이 세계문학의 영역으로 확장되었으며, 문화보편성과 문화특수성이 조화된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주민과 동일한 여성으로서 동질감, 인간으로서 연대의식을 느끼면서 인간관계가 확장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전제성찰을 하면서, 이주민의 시선을 통해서 이주민과 타문화에 대하여 선입견과 자문화중심주의로 편향된 관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성찰은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전환학습적 경험 즉, 다문화감수성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가의 다문화감수성을 증진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감수성발달을 위해서 비판적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선행연구에서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의 다문화감수성발달을 인지·정서·행동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한다(문계완·배재정, 2011). 하지만 어떻게, 왜 그러한 다문화감수성발달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다문화감수성발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문화관련 전문가들을 위하여 다문화감수성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들에게 단순히 문화와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고 경험을 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가치관에 내재된 전제와 관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함을 제안한다. 이런 점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현장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에서 비판적 성찰을 주요 교육내용으로 삼으며, 더 나아가서 자발적인 성찰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전문가들의 다문화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안한다. 다문화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직종의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민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전문인력에게 무엇보다도 다문화감수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다문화감수성발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서사문학전문가들의 다문화감수성발달을 다루었지만, 앞으로 한국사회는 다양한 전문분야에 따른 다문화감수성발달에 대한 연구들을 요구할 것이다. 직업별로 요구되는 다문화관련 이슈가 다르고, 다문화감수성의 세부 영역이 다소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직업분야별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시한 후에 효과를 검증하면

서, 다양한 전문직종의 다문화감수성발달모형을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일회성 교육, 지식전달수준의 교육을 넘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다문화감수성발달에 있어서 이주민은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이주민은 선주민을 포함하여 전문가들에게 다문화감수성을 지도하고 훈육하는 교사와 같은 존재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연구프로젝트를 매개로 이주민들을 만났지만, 이주민들이 직접 들려준 외국의 설화, 이주, 결혼생활, 한국문화적응 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던 자민족중심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반성할 수 있었다. 만약 이주민과의 접촉과 대화가 진지함과 깊이가 없는 피상적인 것이었다면, 전문가들의 다문화감수성발달은 요원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감수성의 발달은 단순히 교육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서 성취되기보다는 이주민을 만나고 교류하면서 비로소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주민들은 국민의 다문화감수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우리 사회는 이주민들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대장(2019), “실직자의 새일 찾기 과정에 나타난 전환학습 경험 내러티브 탐구 - 권고사직으로 실직한 중년 가장 사례”,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순(2017),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이론가들』, 경기: 북코리아.
- 김영순·김금희·전예은(2013), “외국인 대학원생을 지도하는 한국인 교수자의 다문화 감수성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37, 461-488.
- 김이선·최윤정·윤지소·이재경·문희영·이명진·양계민(2019),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 2018-60」, 여성가족부.
- 김정은(2018), “이주민 구술 설화를 활용한 상호문화능력 신장의 교육 방안연구”, 『고전문화과 교육』, 38, 201-238.
- 김혜숙·김도영·신희천·이주연(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51-89.
- 노희숙(2012), “북한이탈주민의 학습경험을 통한 의미관점 전환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리상섭(2007), “한국계 미국인 이민자 가족의 이문화 적응과 전환 학습”,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0(2), 1-30.
- 문계완·배재정(2011), “다문화시대 전문가 집단의 문화적 역량증진을 위한 모형개발”, 『경영교육연구』, 65, 413-441.
- 박미희(2019), “유아교사의 다문화감수성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현숙(2018), “이주민 구술 설화의 문화적 가치와 활용 방안 -이주민 대상 현지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49, 179-229.
- 오정미(2017), “이주민 설화 조사를 통해 본 새로운 다문화교육 방안”, 『구비문학연구』, 47, 187-211.
- 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2012),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이성희·김현수·심경화(2014), “보육교사의 다문화감수성 관련변인 탐색”, 『한국가족복지학』, 19(2), 321-340.
- 이은숙(2013),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생활에 나타난 다문화 전환학습 경험”,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지현·김영순(2012), “생산직 이주근로자 고용 한국 회사 내 한국인 근로자의 다문화 감수성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18(4), 139-162.
- 히로세 준코(2018), “일본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정과 전환학습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ennett, M. J.(2004), “Becoming interculturally competent”, In J. Wurzel. (Ed.), *Toward multiculturalism: A reader in multicultural education*, Newton, MA: Intercultural Resource Corporation, 62-77.
- Chen, G. M. & Starosta, W. J.(200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Human communication*, 3, 1-15.
- Kitchenham, Andrew(2008), “The Evolution of John Mezirow’s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Journal of Transformative Education*, 6(2), 104-123.

- Mezirow, J. (1995), „Transformation theory of adult learning”, In M. R. Welton (Ed.), *In defense of the life world*,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39-70.
- Park, K. (2003), „Transformative Learning: Sojourners’ Experiences in Intercultural Adjustment”,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6(1), 117-139.
- Pedersen, P. J. (2010), „Assessing intercultural effectiveness outcomes in a young-long study abroad program”, *Intercultur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4, 70-80.
- West, L. C. (2009), *Evaluation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With Counselors in International Schools*, Virginia : Regent University.
- Yin, R. (201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 신경식 · 서아영 · 송민채 역(2016), 『사례연구방법』. 서울: 한경사.

〈ABSTRACT〉

A Study on Immigrant Folktale Researchers' Multicultural Sensitivity Develop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formative Learning

Youngsoon Kim · Youngsub O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sensitivity of post-doctoral researchers who have participated in a national project of multicultural research. For theoretical frameworks, Bennett(2004)'s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DMIS) and Mezirow(1995)'s transformative learning were used. As qualitative case study, this study interviewed 4 researchers in K university two times.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DMIS, research participants' multicultural sensitivity was developed from ethno-centrism to ethno-relativism, that is to say, from the level of defense or minimization to the level of adaptation or integration.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formative learning, the reason of multicultural sensitivity development is critical reflection on their own encounter of immigrants and other cultures. The reflection transformed research participants' meaning perspective or meaning scheme. Therefore,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such as the importance of critical reflection in multicultural sensitivity education, systemic and continual program for professionals, and cultural exchange with immigrants.

Key words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DMIS), Transformative Learning, Critical Reflection, Post-doctoral Researchers

논문 투고일	2019. 08. 05
논문 심사일	2019. 08. 19
게재 확정일	2019. 08. 20

김영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kimysoon@inha.ac.kr

오영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yesoh@hanmail.net